

# 순창 발효소스토크울 관광 강화

## 발효우주여행 VR체험공간 내달 1일 오픈 예정

순창 발효소스토크울의 관광지 역할을 한층 강화해 줄 VR(가상현실)체험관이 오는 6월 1일 문을 연다. 군이 이번에 발효소스토크울내에 설치하는 VR(가상현실)체험관은 순창고추장에서 추출한 백신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우주여행을 통해 체험하는 순창만의 독특한 가상현실 공간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5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완료했다. 군 측은 이번 가상현실체험관이 본격 운영되면 발효소스토크울의 관광 기능이 한층 강화돼 순창의 대표 관광지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효소스토크울 가상현실체험관에서는 먼 미래에 지구를 대체할 행성을 찾아 떠난 선발대가 바이러스에 감염

돼 구조를 요청하고 이를 구하기 위해 순창고추장에서 추출된 백신을 전달하는 과정을 가상현실로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으로 아이들의 정서에 딱 맞춘 가상현실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 미디어아트 공간 옆 공간에 HMD(Head Up Mounted), 4D 어트랙션 시뮬레이터 등을 구축하며 가족단위 관광객 8인이 한번에 체험 가능한 규모로 만들어진다.

군은 발효소스토크울을 찾는 관광객의 유형이 중장년층에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로 변하고 있어 이에 맞는 콘텐츠 보완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을 추진 했으며 기존 미디어아트 체험 공간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미디어아트 체험공간은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 미디어아트 공간 화면에 생성되어 발효과정을 거친 다음 전통장이 되는 과정을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족단위 관광객의 인기를 끌고 있는 공간이다. 발효소스 토크울은 계소스의 전시기능에 미디어 체험관, 발효커피 판매 공간 등 관광기능이 더해지면서 지난해 5만 50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 발효소스토크울의 VR 체험관이 오는 6월 1일 문을 연다.

# 임실군, 박진두 군수 권한대행 체제 돌입

## 심민 군수 지방선거 후보 등록... 국가예산 확보 총력 · 공명선거 당부

임실군이 오는 6월 13일까지 박진두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24일 임실군은 이날 오전 심민 군수가 지방선거 후보로 공식 등록함에 따라 박진두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박 권한대행은 내달 13일 24시까지 각종 회의와 행사 참석 등 군수 권한에 해당하는 모든 사무를 대행하게 된다. 박 권한대행은 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각 실과 부서장과 읍면장을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군정 주요현안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군정 업무 수행이 느슨해지거나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활력있게 당면업무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민선 6기 주요시책 및 주민숙원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속사업과 각종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점을 감안해 선거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사무에 최선을 다하고, 공직자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선거준비를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이 오는 6월 13일까지 박진두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 '문화가 있는 날' festival 25일 개최

## 남원 '예가람길' 서 패션쇼 · 통기타 공연 등

남원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와 저변확대를 위해 조성된 문화예술의 거리 '예가람길'에서 25일 (매일 마지막주 금) '문화가 있는 날 festival' 행사가 진행된다. 문화가 있는 날 festival 행사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원과 함께 구도심권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10월까지 매일 마지막주 금요일날 각종 문화예술 공연과 체험행사로 진행된다.

다. 삭막하고 한산했던 구도심이 매일 문화예술 공연, 버스킹 무대, 체험행사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행사로 "문화예술이 강물처럼 흐르는 예가람길"의 대표 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예가람길 내에 시민들의 창작활동, 교육, 교류, 공연연습 등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작공간을 운영 중에 있으며, 창작공간은 1층 복합공간, 2층 연습공간, 3층 소규모 창작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시 관계자는 "예가람길 문화가 있는날 행사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원과 주민, 상인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진행되는 행사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구도심권 골목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5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패션쇼와 플랜스, 통기타 공연과 부채 꾸미기, 우드손거울, 오키나, 차담용 방향제 만들기 등 각종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회원들과 상가 및 지역주민이 직접 주체가 되어 스스로 만들어가는 상사 축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구도심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전망이

다. /남원=유영철 기자

# "미래임실 책임질 대도약 시대 열 것"

## 심민 임실군수 후보

민선 6기 임실군수인 심 민 임실군수 후보가 재선도전을 공식 선언 했다.

심 후보는 24일, 임실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임실군수 후보등록을 마치고, 군정 브리핑을 찾아 "많은 군민들의 뜻에 따라 재선에 출마하게 되었다"며 임실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심 후보는 "그간 오랫동안 지역발전의 결실들이 되어왔던 '목정호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비롯하여 '임실N치즈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 그리고 미래인재의 요람인 '봉황인재화당'의 개설 등 임실군의 미래발전을 위한 터전을 마련했다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이제 이들 기초위에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들을 잘 접목시켜 '작지만 스마트한 임실군'을 창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심 후보는 민선 7기



임실군정을 이끌어 갈 5대 핵심공약을 발표하며 준비된 군수로의 면모를 보였다.

전진기지로 개발·발전을 통한 심진강 르네상스 시대 ▲섬수산 중심 '힐링관광 벨트조성'으로 500만 관광 시대 창조 ▲농업생산 안정망구축 및 신소득원 개발, 농업복지 실현 ▲일자리 창출 및 경제도약 활력화로 삶의 질 향상 등이다.

▲빛장풀린 목적 호, 신성장 동력 ▲농업생산 안정망구축 및 신소득원 개발, 농업복지 실현 ▲일자리 창출 및 경제도약 활력화로 삶의 질 향상 등이다. 끝으로, 심 후보는 "4년전에도 그랬듯이 많은 군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지지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민선 7기, 4년도, 오롯이 임실군 발전을 위해 남은 여생을 모두 불사르겠다"는 야심찬 각오를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 관광지 29곳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남원시는 올해 시민, 관광객의 왕래가 잦은 예가람 및 달봉, 지리산둘레길 1코스의 총 29곳에 국가지점번호판 내내표지를 설치했다.

국가지점번호는 시에서 관리하는 국가주요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경찰·소방서·산림청 등에서 관리하는 시스템과 정보가 공유되며 사고의 순간에 사고지점 위치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 할 수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지역 매 아리

### 순창, 아시안게임 외국 전지훈련팀 유치

순창군이 전국 규모 각종 체육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외국 선수단 전지훈련을 유치해 화제다.

순창군에 따르면 오는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필리핀 정구 국가대표팀 12명의 선수들이 대회 전 마지막 집중 전지훈련을 순창에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구 종목에 출전하게 될 이들 선수단은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15일간 순창에 머물며 아시안게임 메달을 향한 담금질에 나서게 된다.

이들 외국 선수들이 순창을 택한 요인은 올해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 주니어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등 굵직한 전국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고, 파트너 훈련을 할 수 있는 군청 실업팀, 제일고 남·여 정구팀이 상주하고 있는 요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2015년 12월 개장한 실내다목적(돔)구장과 2017년 4월에 개장한 하드코트 경기장에서는 비가 와도 훈련할 수 있어 최적의 시설을 갖춘 전지훈련장소로 손꼽히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 총력

남원시가 침체된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한루원·남원예촌·고생길 등 남원의 대표적 관광지와 근접해 있는 공설시장은 야시장 조성을 위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원을 확보, 야간불거리·막거리·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체류형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팔도장터 관광열차 관광객 유치로 연간 4,000여명의 관광객이 공설시장을 방문하였으며, 매출증가와 시장홍보효과로 상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리산권역 대표 전통시장인 인월시장은 지리산둘레길 방문객 유도를 위해 토요일주말장터와 문화행사를 6년째 추진하여 지리산권 필수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용남시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52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골목형 시장육성사업을 통해 시장만의 고유브랜드 개발과 특화골목을 조성하여 시장방문객은 물론 상인들의 큰 호평을 얻었으며, 앞으로도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등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